

15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미야자토 오사무 (宮里修)
日本高知大学

일본과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미야자토 오사무 (日本高知大學)

I. 머리말

彌生 청동기문화는 東北亞細亞 青銅器文化가 맨 끝 땅에서 變容된 것이다. 中國東北地方에서 형성된 銅劍, 多紋鏡, 車馬具 등을 특징으로 하는 琵琶形銅劍文化가 주변으로 전파되며 문화권 외곽인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細形銅劍文化가 탄생했다. 세형동검문화는 이윽고 日本列島에 전해지고 彌生社會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야요이 사회에서 武器나 銅鐸은 원래 기능을 잃고 상징성이 폭주하듯이 심하게 巨大化되었다. 크게 보면 야요이 청동기문화는 形骸化와 거대화를 특징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었다.

본고는 한반도 청동기문화와 일본 야요이 청동기문화를 비교하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출현기 양상과 당초 잠재되었던 다른 변용 가능성 및 한반도와 대조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 銅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변천과 지역적 특징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영향을 받아 비파형동검의 지방 양식으로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비파형동검문화권 중에서 변두리에 위치하며 그 청동기는 독자적으로 변화해서 세형동검문화라는 나머지 지역과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진 청동기문화가 되었다. 그것이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祖型이 되었다. 한반도 청동기문화는 동검을 중심으로 한 무기 型式을 연대 기준으로 해서 비파형동검기인 I期, 세형동검기인 II期, 철기移行期인 III期로 나눈 시기 구분이 세부적으로는 논쟁이 있지만 널리 공유되어 있다(宮里修 2010).

본고는 주로 II기의 한반도 청동기문화와 야요이 청동기문화를 對比하고자 한다. 역사적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I기도 아울러 검토한다. 이하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I기와 II기 내용을 정리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 탄생의 前提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 정리에 있어서는 청동기문화의 남북 지역 차이 및 호서·호남지역의 우위성을 염두에 둔다.

1. I 기의 양상

I 기에는 중국동북지방, 그 중에서도 遼東地方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나타났다. 중국동북지방에서는 靑銅彝器, 車馬具, 武器類를 모두 구비하는 老哈河유역(小黑石溝遺蹟, 南山根遺蹟)을 지역적 核으로, 大凌河유역에서 조립식 비파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가 형성되고 주로 동검이 東方에 전파했다. 즉 청동기는 무기로서 전파되었다.

한반도에서 맨 처음에 나타난 초기 동검은 요동지방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벌써 테포르메가 인정되는 驛洞 石棺墓(도2-1·2) 같은 모습이었다. 한반도에서 무기로 수용된 청동기는 무문토기시대 사회에서 석검을 포함한 劍 文화를 발달시켰다. 동검 및 검 문화는 처음부터 남북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남북 지역 경계는 팽이형토기가 전파된 범위로 생각하면 북부 청동기문화의 범위는 한강유역권까지(洪川 芳良里유적, 平昌 下里유적) 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동검에 주목하면 한반도 북부에서는 처음에는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요동지역과 同型同大의 것으로 이입되었다(도2-7·8). 그 후 동검의 비파형 모양이 축소되어 봉부가 늘어지고 찌르는 기능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도2-12·13). 봉부 신장에 독특한 어레인지를 가한 西浦洞式 동검도 생겼다(도2-10·11). 한반도 북부에서는 검신에 대해서는 요동지방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한편 세형동검에 연결되는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 검과두식에 관해서는 중국동북지방의 자루끝 상자형 부분에 枕形 검과두식을 삽입한 구조에 대해, 판 모양 반부에 바닥이 평평한 검과두식을 묶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런 북부에 비하여, 한반도 남부의 동검은 처음부터 등대 날 연마가 미약하고 자돌 기능에 대한 요구가 약하였다(도2-9). 변화되는 가운데 더 실용성을 소홀히 하여 비파형동검의 형태적 특징만 강조한 肥大化 테포르메가 생겼다(도2-20). 검과두식에서도 마찬가지로 馬蹄形 검과두식의 비대화 테포르메를 확인할 수 있다(도2-3).

한반도 북부에서는 동검은 독자성을 발휘하면서 실용성을 향상 시키도록 변화되고 한반도 남부에서는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상징성을 늘리도록 변화되었다. 비슷한 양상은 동모나 석검에서도 보여서 남북 사이의 무기에 대한 현저한 태도 차이가 인정된다.

銅銚는 상대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반도 북부에서도 당초부터 연마한 날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한 테포르메가 생겼다(도2-28). 출현기의 동모가 동검보다 무기로서의 역할이 낮았던 것 같지만 그 후는 봉부 신장에서 서포동식 동검과 같은 독자적인 표현을 하면서(도2-29·30), 전체적으로는 直刃化되어 세형동모로 변화되었다(도2-32).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당초 시작한 테포르메를 더 한층 비대화 시켜 동검보다 形骸化가 진행되었다(도2-31).

石劍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의 팽이형토기 문화권에서는 석검은 有莖式(도2-16·17) 을 중심으로 槌로 등대를 모방하듯이 동검에 비긴 의미를 주어 동검과 같은 조립 구조로 동검과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구비했다(손준호 2006, 宮里修 2012). 한반도 남부의 석검은 有柄式의 존재가 주목되고 역동(도2-1)과 같은 馬蹄形 검과두식을 일체적으로 표현한 유병식석검이 등장했다(도2-15). 유병식석검은 검신이야말로 直線的으로 좁게 변화되지만 자루 兩端 돌기가 강조되고(도2-18), 두드러지게 거대화되는 가능성이 잠재된 무기로 존재했다(도2-19). 달성 평촌리 20호 석관묘에서는 허리 우측에 佩用한 위치에서 길이 63cm의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어서 보이는 행위에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장용준·平郡達哉 2009).

I기는 요동지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실용적으로 독자적인 무기문화를 형성한 한반도 북부와 실용성보다 상징성을 강조한 남부와의 지역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2. II기의 양상

비파형동검이 기능성을 유지한 대로 변화된 연장선상에서 세형동검이 성립되었다. 세형동검은 중국동북지방의 동검 변화 방향과 달리 봉부가 짧고 扶入部를 연마로 표현하듯이 비파형동검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검과두식을 보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관상반부에 결박하는 구조를 전제로 입주식이라는 새 형식이 탄생했다.

세형동검은 龍興里式(도2-12·13)과 弧山里式(도2-14)이 融合해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형동검의 성립지역을 생각할 때, 정형화 이전 단계인 다양한 변이를 보인 세형동검은 東西里유적이나 南城里유적 같은 호서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도2-21~24). 세형동검은 차라리 요동에서의 영향이 오래 미약했던 주변부인 호서지역에서 성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체계

호서지역에서는 세형 청동무기 이외에도 異形靑銅器나 多鈕細文鏡 등 세형동검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군이 성립되고 청동기의 생산량도 현저히 증대되었다. 土范으로 대표되는 새 기술 도입이 청동기의 多樣化, 價値體系 編成, 生産量 增大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기왕의 石范은 문양이 없는 칼 제품 중심, 신래의 토범은 유문인 祭祀具 중심이라는 구분도 생겼다. 劍把形銅器나 喇叭形銅器를 비롯한 이형청동기는 원래 차마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여 제사구로 변질되었다. 이형청동기는 최고난도 기술을 구사해서 생산된 물건으로서 청동기 체계의 최상위 자리를 잡았다. 다뉴경은 기왕의 조문경이 새 기술 아래에서 모두가 통합되어서 세문경이 탄생했다. 종래대로 사면 같은 지도자의 물건으로 이형청동기에 따른 격이 주어졌다. 실용성보다 信仰세계와 맺어진 토범 제품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한 사회 상위 계층에만 미치는 기물로서 사회의 격차를 표출했다.

II기에는 I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기가 제작되고 청동기 생산력의 향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이 많이 생산된 것이 세형동검이었다. 시기에 따라 세형동검 형식이 정형화되고(도2-25·26) 그 때까지 요동과의 관계가 깊었던 한반도 북부도 세형동검문화권에 포함되고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권은 청천강을 경계로 크게 분할되었다. 세형동검문화의 청동무기는 I기부터 계승된 동검과 동모가 있고 약간 늦어서 동과가 나타났다. 세가지의 비율을 비교하면 동검이 압도적으로 많고 동모가 동검의 30%정도이며 동과는 더 적다. 동검이 무기의 중심으로 세형동검의 성립에 따라 석검이 거의 자취를 감춰서 劍은 동검에 일원화되었다. II기 이후의 동검 전체 변화에 주목하면 약간 늦게 금속제 검과두식이 나타나고 다음 III기에는 칼집 존재가 현재화되듯이 동검은 단계적으로 시각적 노력에 힘을 주게 된다. 장식성을 중요시하지만 여전히 실용성이 유지되는 것도 주목된다.

II기에는 호서·호남이 핵심 지역이 되고 한반도 북부와 영남 지방과의 지역 차이를 생기게 했다. 청동기의 지역차를 낳은 최대 원인은 토범 기술의 유무이다. 이형청동기나 다뉴세문경의 靈力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대 배경에서 비법인 토범 기술을 가진 호서·호남 지역은 청동기의 보유 및 유통을 독점해서 사회 관계상에서 우위적인 입장을 차지했다. II기중에서 이형청동기가 바깥 지역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세문경 같은 경우에도 밖에 유통된 것은 중형경(B식), 소형경(C식)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열도에 전파된 청동기는 다뉴세문경과 검과두식의 併行關係(도3)에 따르면 II기 전후가 된다(宮里修 2013·2014). 岸田유적 자료(도4-16)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되지만 한반도 청동기문화 II기기와 야요이 중기 초두와의 접점이 야요이 사회에서의 청동기 출현을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된다.

Ⅲ. 야요이 문화의 청동기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출현이 그렇듯이 새로 등장한 원료인 청동은 주로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무기로 인해 사회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덧붙여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경제 관계(여러 원료나 소재 획득)도 새 사회관계를 표출하였다. 이하 彌生 사회에서의 청동기 출현 양상을 위에서 정리한 한반도 청동기문화 I기·II기 양상과 대비하면서 검토하겠지만 호남지역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기 위해 近畿지방을 중심으로 한 銅鐸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요이 전기는 대략 한반도 청동기문화 I기와 평행된다. 먼저 彌生 前期에 廣義의 한반도 남부 지역 청동기문화에 속한 마제석검이 전해져왔다. II기는 대략 彌生 中期前半에 해당되고 그때로부터 비로서 청동기 자체가 본격적으로 전해져왔다.

1. 무기의 수용

야요이시대를 일으킨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농경문화복합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玄界灘연안의 北部九州에 전래되었다. 농경문화복합 중에서 마제석검, 마제석촉이 포함되어서 일본열도 사람들이 처음 무기를 손에 들었다.

磨製石劍, 磨製石鏃은 부장품으로 확인된 사례가 많은데, 마제석촉 경우에는 新町 24호묘(志摩町教育委員會 1987)나 宮ノ前 12호묘(前原町教育委員會 1989)에서 인골에 박힌 사례가 있고 대인 무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제석촉 자체는 차차 사라지고, 繩文시대 이래의 타제석촉이 다시 주류가 되지만 화살을 대인 무기로 하는 새 문화는 야요이 사회에 정착되었다.

한편 야요이 사람들이 무기로 손에 든 처음의 劍은 한반도 남부의 유병식 마제석검이었다. 坪村里 20호묘(도2-19)가 같은 비대화 가능성을 내포한 型式이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동검에도 석검에도 劍에 대해서는 많은 상징성을 주었다. 일본열도에서도 청동기의 본격적 전파 이전인 야요이 전기에 있어서 유병식 석검을 實戰 무기로 사용한 적극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야요이 사회는 석검을 많은 상징성을 가진 물건으로 수용했지만 그후의 석검은 단면 菱形의 검신이 두꺼워지고 자루 양단 돌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변화되어 실용적으로 제지화된 석검은 야요이 중기의 청동기 수용에 대응한 듯이 戰鬪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스타레(수다레) K-3(穗波町教育委員會 1976)처럼 戰鬪 피해자의 사례가 급증한다.

한반도 청동기문화 I기에 평행하는 단계에는 今川遺蹟(津屋崎町教育委員會 1981)처럼 동쪽이나

동검 습베를 재가공한 동착이 출토되었지만 자료가 적고 단편적이다. 기타의 청동기와 관련된 자료는 석검과 조합된 검파두식이나 木劍(도4-1) 같은 假器로만 확인된다.

2. 초기 청동기의 양상

야요이 시대에서의 청동기 출현은 북부구주에서 무덤의 부장품으로 확인된다. 甕棺 型式(常松幹雄 2011)으로는 金海式(新)부터 시작된다. 앞서는 시기(伯玄式)에 甕棺墓에서는 마제석촉 등이 출토되고 청동기 이전인 전기적 양상을 보인다(도3-2·3). 맨 처음의 청동기 한 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吉武高木3號木棺墓(福岡市教育委員會 1996)의 銅劍, 銅鏃, 銅戈, 多鈕細文鏡이 잘 보여준다(도4-9~13). 吉武高木 3號木棺墓는 동반된 부장 小壺로 金海式(新)甕棺 시기로 평가된다. 金海式(新)甕棺墓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사례는 吉武遺蹟群(福岡市教育委員會 1996)에 많고 기타 福岡市 岸田遺蹟(福岡市教育委員會 2015)이나 古賀市 馬渡·束ヶ浦遺蹟(古賀市教育委員會 2006)이 있다. 馬渡·束ヶ浦2호 옹관묘에서는 동검2, 동모, 동과가 있고(도4-23~27) 세문경이 없지만 吉武高木 3호 목관묘와 같은 조합이다.

세가지 청동무기는 각각 다른 가치를 주어왔다. 最古 형식인 세형 단계의 분포를 보면 동검은 西日本 일대에 널리 있고 동과는 구주내에 머무르고 동모는 福岡平野 일대에 한정된다. 세가지는 분포 범위가 뚜렷이 다르고 그후의 武器形祭器 동향을 아울러 보면 동모가 최상위이고 동과, 동검이 그 다음 순서이다(岩永 1997). 동모는 양이 적고 부장될 때는 동검 등 기타 청동기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도4-17~20). 한편 청동기가 단독으로 부장될 때는 동검인 경우가 많다(도4-4·7).

청동기 수용 당초부터 야요이 청동기에는 재지화가 진행되었다고 지적되었다(岩永口省三 1994). 有耳 동모, 扁平 脆弱한 동과가 그 대표이다. 한반도의 동모는 無耳로 目釘孔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의 有耳 동모는 많은 것이 III기 이후이고 가장 올라가는 것으로 II4기의 水村里遺蹟(忠清南道歷史文化研究院 2007)이 있다. 야요이 청동기에서도 無耳有節의 동모(도4-22)가 있기는 하지만 有耳3條節帶(도4-19)나 有耳1條節帶(도4-9·18·23)가 일반적이다. 동모의 耳(고리)는 한때 자루 着裝을 위한 장치로 생각되었지만 현재로는 장식을 매달리는 부위로 이해된다. 편평 취약한 동과는 “明器 銅戈”(橋口達口也 2007)라고도 불린 실용하지 못 하는 것이다(도4-28~31). 金海式甕棺의 당초 시기부터 나타나고 둘 형식 후의 汲田式甕棺 시기에 걸쳐서 유문 편평한 모양으로 정형화된다(도4-30·31). 명기 동과는 토범으로 제작된 가능성이 지적되고(村松洋介 2008) 청동기 생산이 시작된 당초 야요이 사회에서 실시된 여러가지 시도 중의 하나이다.

잘 알다시피 야요이시대의 靑銅武器는 武器形靑銅祭器로 변질되었다. 동모와 동과는 細形, 中細形, 中廣形, 廣形 순으로 실용성을 形骸化 시키면서 대형화되고, 동검은 細形, 中細形, 中廣形, 平口形 순으로 마찬가지로 실용성을 상실하면서 대형화 및 異形化되었다.

한편 형태화, 대형화와는 다른 방향성이 적어도 弥生時代 中期中까지의 청동무기에는 인정된다. 동검은 장식성을 늘리는 방향이 있고 동과는 야요이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이 기대하게 되었다.

3. 동검의 장식성

맨 처음 형식인 세형동검은 당초 實戰用 무기로 사용되어서 永岡 95號 甕棺(筑紫野市教育委員會 1990)이나 隈·西小田 3地點 K55(筑紫野市教育委員會 1993)에서 보이듯이 살상 행위에 사용되었다. 受傷 인골에 동반된 석검 사례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동검 등장에 따라 석검을 포함한 劍을 사용한 전투가 일반화되었다. 劍을 사용한 행동 및 전투가 큰 사회적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吉野ヶ里墳丘墓(佐賀縣教育廳文化財課 1992)나 柚比本村區畫墓(佐賀縣教育委員會 2003)에서 보이듯이 동검을 가진 사람이 모아서 특별한 매장 구획을 형성했다. 隈·西小田遺蹟에서는 구획묘역내 피장자는 서로 血緣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田中良之 2000) 차라리 구획묘내 피장자는 밖의 공동묘지 사람들과 혈연관계를 가진다. 구획묘내 피장자는 여러 사회 집단에서 武勳으로 뽑힌 英雄墓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溝孝司 1999).

동검에서도 위의 상황에 대응한 역할이 기대되어서 형태화와는 다른 장식화 경향이 생겼다. 동검은 초기 단계부터 등대와 주연부 날에 너비 좁은 줄무늬 모양을 연마를 만들었다(도4-7·12). 한반도에서는 東西里遺蹟 등에서 유례가 있어서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당초부 터의 장식성에 대한 의식을 볼 수 있다.

岸田 K0473에서는 M立柱形c式 검과두식(도4-16)이 출토되고 청동기 수용·제작의 당초부터 야요이 사회에서는 토범을 사용한 독자적인 造形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야요이 사회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의 시도는 須玖タカウタ(타카우타)遺蹟(春日市教育委員會 2017)에서 잘 볼 수 있다. 須玖タカウタ遺蹟은 북부구주의 큰 청동기 제작 공방 및 王墓 造營地인 春日丘陵 北西 변두리에 위치한다. 5차 조사로 발견된 1호 수혈 일원에서 그때까지 몰랐던 내용의 세형단계 토범 및 석범이 출토되었다. 토범이 32점, 석범이 8점이 있고 토범에는 동과와 동모 혹은 동검이 있고 기타 검과두식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있다. 석범에는 동모, 동검과 다뉴경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 석범을 사용한 유병식 동검이나 다뉴경은 아직 몰랐던 조형으로 당초는 청동기 제작에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범으로는 원래 석범을 주로 한 동과나 M立柱形c式 탄생과 관련된 검과두식이 있어서 기술적인 점에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범 기술을 응용해서 창출한 독자적인 동검이 有柄口式 銅劍이다(도5-1·3). 원래 조립 구조인 검신, 스페 고정부, 검코, 자루, 반부, 검과두식을 모두 청동으로 일체로 제작한 것이다. 吉野ヶ里 SJ1002 출토품(도5-3)을 관찰하면 검신과 스페 고정부에는 장축 방향에서 어긋남이 인정되어서 완성된 청동 검신을 자루 부분을 만들 때 용범에 포함해서 함께 주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검과두식과 반부의 결합은 아마도 따로따로 만든 원형을 결합해서 용범을 제작하여 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체로 동검을 제작한 제품을 시기가 내려가는 三雲南小路 1호 옹관묘(도5-5)에 계승된 다음에 철검 자루에 도입되었다.

동검을 꾸미는 의식은 칼집에서 발휘되어 柚比本村SJ1137에서 발견된 鞘付 銅劍(도5-4)은 붉은 옷칠을 바른 칼집에 관옥을 열상에 끼워서 높은 장식성을 발휘했다. 묘역을 구성한 나머지 옹관묘에서는 中細形 동검과 금속성 검과두식의 조합이 확인되고 동검의 형태화 및 대형화 방향과 장식성을 높이는 방향이 중세형 단계까지는 공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검은 나머지 청동무기와 마찬가지로 형태화 및 대형화라는 변화를 이루지만 수용부터 型式 變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즉 甕棺 型式의 金海式(新)부터 須玖式까지 기간에 劍의 사회적 의의의 상승에 따라 武威 상징으로 동검의 장식성을 높이는 동향을 볼 수 있다. 청동무기는 결과적으로 거대한 祭器가 되는 것으로 검 장식은 야요이 청동기의 徒花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동검은 구주 밖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中國·四國地方에서 발견된 세형 동검, 중세형동검에는 자주 元部에서 쌍구멍을 확인할 수 있다(도5-2). 이전에는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쌍구멍 위치를 검토하면 대부분이 자루에서 3cm정도 사이를 두어 있어서 장착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인정된다(吉田廣 2014). 동검을 모방한 木劍을 보면 보통 검 자루보다 훨씬 긴 자루가 장착된 것이 주목된다. 그것을 근거로 中國·四國地方의 동검은 원래 劍의 사용법에서 떠나서 긴 자루로 창 같이 사용되었다고 해석되었다(吉田廣 2014). 쌍구멍은 마멸 흔적으로 장식을 매달거나 동모와 비슷한 모습을 상징되었다. 즉 최상위 기종인 동모를 입수 못하는 中國·四國地方에서는 동검에 긴 자루가 매달리는 장식으로 동모의 대용품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中國·四國地方은 실용적인 타제 석검과 동검을 충실히 모방한 동검형 석검을 구비한 지역으로 劍의 문화 자체는 널리 침투되는 가운데 동검에는 특별한 역할을 개대해서 돌로 실현한 實戰 세계와 청동으로 실현한 상징 세계가 분리된 양상을 볼 수 있다.

4. 戈의 중시

戈는 彌生人에 특별히 애호되고 야요이 사회에서 독특한 가치가 주어졌다. 동과 기원지인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원래 戈는 중국의 鈎兵이 기원이고 戰車나 步兵의 무기로 생겼다. 車馬具의 발달이 저조한 遼東지방에서 한반도에 이르러 자루가 짧은 박는 무기로 정형화되고 일본열도에 전파되었다. 일본열도에서는 戈는 길이 50~60cm정도의 자루(도6-19·20)에 장착해서 戈의 선단부를 주요한 사용 부위로 해서 敵한테 봉부를 박는 것으로 사용했다. 실용무기로 사용한 세형 단계로부터 진술한 바와 같이 편평 취약한 明器 銅戈(도6-1)를 제작하였고 당초부터 나머지 무기와 다른 성질을 엿볼 수 있다. 石戈도 활발히 제작되고 먼저 동과 모방품(도6-10)으로 시작하고 원하는 기능에 따라 有胡式(도6-12·14·15), 目釘式(도6-11·13·16·17)이라는 각 형식이 전개되어 지역마다 다양한 석과가 사용되었다(寺前直人 2006). 주로 銅鐸을 제작하고 무기 제작이 저조한 近畿지방에서도 近畿型 동과(도6-4)가 지역 型式으로 성립되듯이 戈는 야요이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長野縣 柳澤遺蹟(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12)에서 九州型 1점, 近畿型 6점의 매납이 확인되듯이 동과는 멀리 東日本까지 미치고 또는 東日本에서는 독자적인 目釘型 石戈(도6-17)나 異形化된 有角石器(도6-18) 등 戈 문화가 야요이 사회의 넓은 범위에 침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철기 제작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먼저 鐵戈 제작이 시도되었고(도6-9), 반대로 철과를 모방한 동과도 제작되었다(도6-7·8). 模擬戰과 같은 제사에서의 사용이 상정된 木戈(도6-21)도 확인할 수 있고(中村 1996) 戈는 여러가지 재료로 具象化되고 서로 양향을 주고받기하면서 야요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었다.

銅戈는 나머지 청동무기와 부장시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세형 및 중세형 동과의 부장에서는 동과를 피장자 머리 부근에 두거나 혹은 관 밖에 두는 경향을 볼 수 있다(吉田廣 2015). 이런 동과의 취급 특히 棺外 부장은 동과가 맡은 境界 수호의 역할을 표시한다고 해서 무기형 청동

기의 특징인 청동기 매납의 선구가 되었다는 가능성이 지적된다(春成秀爾 2016). 동과에 의한 경계 수호는 더 넓은 지역간 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중세형 및 중광형 동과의 복수 매납은 福岡平野의 남측 진입로인 二日市 地峽帶 주변에서 현저히 집중된다(岩永省三 1997, 宮里修 2019). 철과도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이며 戈가 福岡平野의 경계 지역에서 그 역할을 기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지역에서는 무기 부장에서도 嘉麻市 鎌田原遺蹟(嘉穂町教育委員會 1997)이나 日田市 吹上遺蹟(日田市教育委員會 2006)에서 보이듯이 무기 중에서도 동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인정된다. 石戈의 분포가 三郡山地 以東인 구주 동북부에 집중된 것도 관련된 현상이다(宮里修 2019). 구주 밖에 전파된 동과는 長野縣 柳澤遺蹟은 예외로 해서 南四國에 한정된 것도 특이한 특징이다(宮里修 2019). 南四國에 집중된 것은 周防灘沿岸 지역과 南四國의 전통적 관계에 기인한 것이지만(宮里修 2020), 하여튼 戈가 넓은 지역에서 나머지 무기와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표현된 사람이 무기를 손에 들 때 오른 손에 戈, 왼 손에 盾를 가진 표현이 정형화되었던 것도 중요하다(深澤芳樹 1998, 小林青樹 2008). 戈와 방패를 가진 인물 회화는 토기(도7-2·3·5~8·11), 동탁(도7-1·4), 옹관(도7-9), 鐸形 토제품(도7-10)에서 그려진다. 자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오른 손에 戈, 왼 손에 방패가 정형화된 표현이고 자주 머리에 깃 장식이 있기 때문에 샤먼의 치장이나 행동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那珂遺蹟의 사례(도7-9)는 사람이 누락하여도 같은 표현이 성립된 점이 중요하다. 야요이 사회의 중심 시기는 彌生 中期後부터 後期前으로 청동무기에는 벌써 제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세계에서 어떤 戈를 가지냐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戈와 방패를 가진 종교적 지도자의 존재가 西日本을 중심으로 한 넓은 범위에서 공통되었다는 것이 야요이 사회와 청동기를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다.

IV. 맺음말

이상 기원지인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의 흐름을 정리해서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전제 조건을 파악하고 무기로 수용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와는 크게 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변화된 것을 내타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형태화 및 대형화와 다른 측면에 주목해서 武威를 강조하는 사회 상황에서 동검의 장식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戈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야요이 사회에서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을 내타냈다. 이러한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와 야요이 청동기문화의 분리는 세형동검문화의 가장 중요한 물건인 이형청동기가 전파되지 않고 세문경도 마음대로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요이 사회에서는 청동기에 기대되는 靈力을 무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주제로서는 銅鐸과의 관련도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또는 청동기의 형태, 취급, 가치를 생각할 때 철의 출현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잘 언급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 참고문헌 ■

- 石川日出志, 2018, 「磨製石戈と彌生文化」, 『季刊考古學』 143, 雄山閣
- 岩永省三, 1994, 「日本列島産青銅武器類出現の考古學的意義」, 『古文化談叢』 33, 九州古文化研究會
- 岩永省三, 1997, 『歴史發掘7 金屬器登場』, 講談社
- 小林青樹, 2008, 「盾と戈をもちいた儀禮」, 『彌生時代の考古學7 儀禮と權力』, 同成社
- 田中良之, 2000, 「墓地から見た親族・家族」, 『古代史の論点2 女と男, 家と村』, 小學館
- 常松幹雄, 2011, 「甕棺と副葬品の變貌」, 『彌生時代の考古學3』, 同成社.
- 寺前直人, 2006, 『武器と彌生社會』, 大阪大學出版會
- 中村友博, 1996, 「武器形祭器」, 『彌生文化の研究第8卷 祭と墓と装い [第2版]』, 雄山閣
- 橋口達也, 2007, 『彌生時代の戦い』, 雄山閣
- 春成口秀爾, 2016, 「銅鐸の埋納」, 『季刊考古學』 135, 雄山閣
- 深澤芳樹, 1998, 「戈を持つ人」, 『みずほ』 24, 大和彌生文化の會
- 溝口孝司, 1999,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雄山閣
- 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宮里修, 2012, 「コマ形土器から花盆形土器へ」, 『古代』 128, 早稻田大學考古學會
- 宮里修, 2013, 「日韓青銅器文化の併行關係と東北アジアにおける位置」, 『技術と交流の考古學』, 同成社
- 宮里修, 2014, 「朝鮮半島／韓半島青銅器文化の列島における受容と展開」, 『瀬戸内海考古學研究會 第4回公開大會予稿集』, 瀬戸内海考古學研究會
- 宮里修, 2018, 「高知縣立歴史民俗資料館所藏の琵琶形銅劍について」, 『高知縣立歴史民俗資料館研究紀要』 22
- 宮里修, 2019, 「太平洋沿岸地域の交流—南四國と銅戈—」, 『彌生時代における東西交流の實態—廣域的な連動性を問う—』, 西相模考古學研究會・兵庫考古學談話會合同シンポジウム實行委員會
- 宮里修, 2020a, 「周縁の銅戈」 『彌生時代の東西交流』, 六一書房
- 宮里修, 2020b, 「출현기의 한반도 청동기」, 『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집』, 한국고고학회
- 村松洋介, 2008, 「銅戈의 編年과 製作技術—韓日 兩地域の 比較—」, 『考古廣場』 3, 釜山考古學研究會
- 吉田廣, 2011, 「武器形祭器」, 『講座日本の考古學6 彌生時代(下)』, 青木書店
- 吉田廣, 2014, 「彌生青銅器祭祀の展開と特質」,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85
- 吉田廣, 2015, 「銅戈の副葬」, 『みずほ別冊2 彌生研究の交差点』, 大和彌生の會
- 吉田廣, 2016, 「日本列島の初期青銅器文化」, 『季刊考古學』 135, 雄山閣
- 손준호, 2006,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書景文化社
- 장용준·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韓國考古學報』 72, 韓國考古學會

보고서

- 小郡市教育委員會編, 1986, 『三國の鼻遺蹟Ⅱ』
春日市教育委員會編, 2017, 『須玖タカウタ遺蹟3』
嘉穂町教育委員會編, 1997, 『原田・鎌田原遺蹟』
古賀市教育委員會編, 2006, 『馬渡・束ヶ浦遺蹟1』
佐賀縣教育委員會編, 2003, 『柚比遺蹟群3』
佐賀縣教育廳文化財課編, 1992, 『吉野ヶ里』
志摩町教育委員會編, 1987, 『新町遺蹟』
筑紫野市教育委員會編, 1990, 『永岡遺蹟Ⅱ』
筑紫野市教育委員會編, 1993, 『隈・西小田遺蹟』
津屋崎町教育委員會編, 1981, 『今川遺蹟』
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編, 2012, 『中野市柳澤遺蹟』
日田市教育委員會編, 2006, 『吹上Ⅳ』
福岡市教育委員會編, 1996, 『吉武遺蹟群Ⅷ』
福岡市教育委員會編, 2015, 『岸田遺蹟2』
穂波町教育委員會編, 1976, 『スタレ遺蹟』
前原町教育委員會編, 1989, 『長野川流域の遺蹟群Ⅰ』
忠清南道歴史文化研究院編, 2007, 『公州 水村里遺蹟』

挿図出典

図1は筆者作成

図2・4~7は各報告書より作成

図3は宮里 (2014) を改変

		韓半島北部	韓半島南部	日本列島		
韓半島青銅器文化	I 期	前半 (遼東과 親緣) 遼東系琵琶形銅劍 有莖式磨製石劍 後半 琵琶形銅劍 鋒의 伸長 直刃傾向	有柄式石劍：柄의 強調 琵琶形銅劍의 肥大化 有柄式石劍：柄의 肥大化	有柄式石劍의 受容 柳葉式石鏃 石劍·石鏃의 在地化	早期 前期	弥生(青銅器)文化
	II 期	細形銅劍 文化圈	【湖西·湖南】 細形銅劍 成立 異形青銅器 創出 多鈕細文鏡 土范導入 生産量增大	【嶺南】 武器生産 儀器受容 青銅劍·矛·戈의 受容 細文鏡 裝飾銅劍 戈多樣化 祭器化	衝擊武器 中期	

圖 1. 한일 청동기문화의 시기적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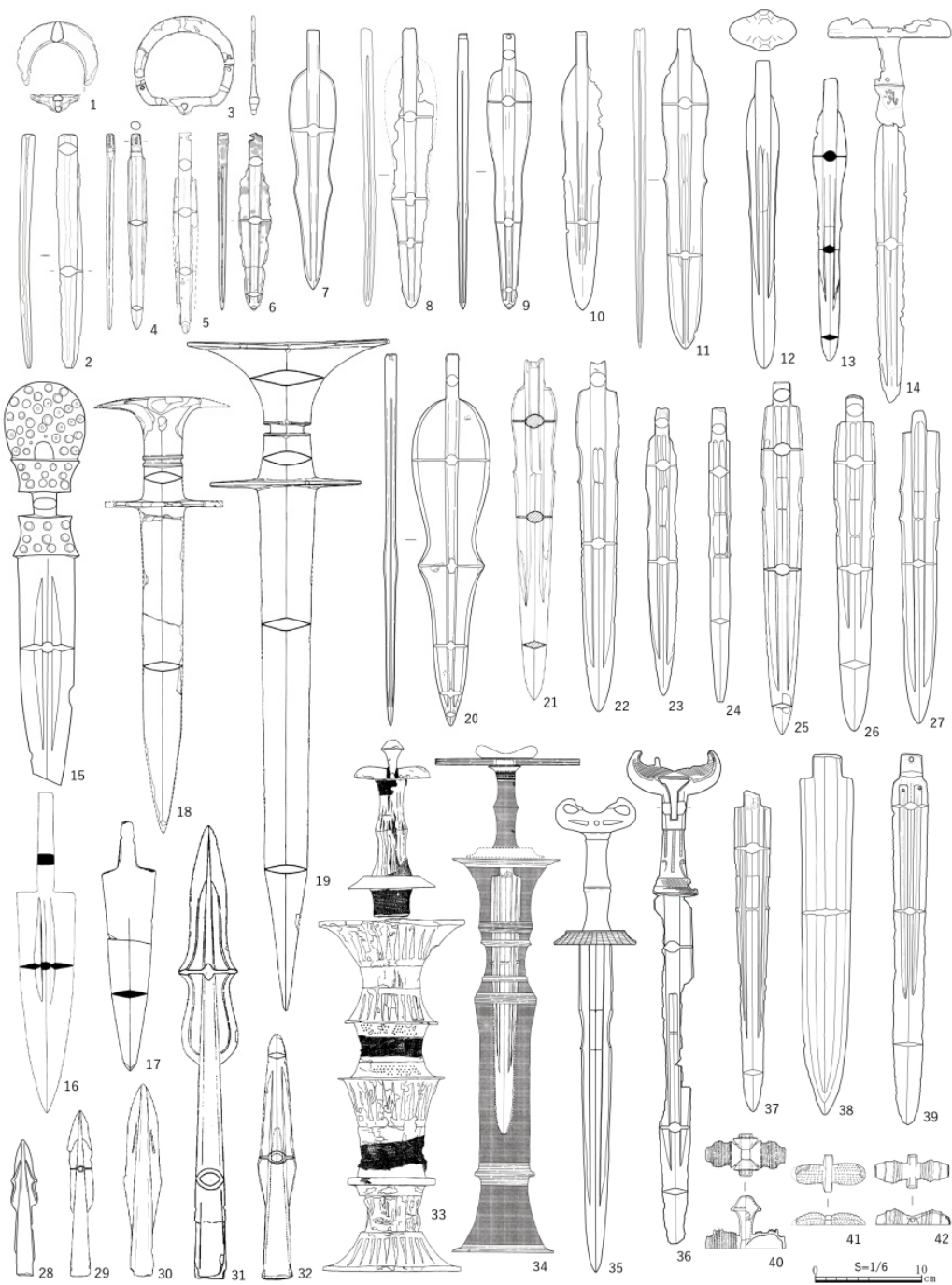


圖 2. 한반도의 동검 관련자료

(1·2. 廣州市驛洞石棺墓, 3. 金海市蓮池支石墓, 4. 春川市牛頭洞石棺墓, 5. 舒川郡鳥石里周溝石棺墓, 6. 大田市比來洞 1 号支石墓, 7. 延安郡琴谷洞, 8. 洪川郡芳良里, 9. 金陵郡松竹里 4 号支石墓側, 10. 平壤市西浦洞, 11. 平壤付近, 12. 平壤市新成洞石棺墓, 13. 价川郡龍興里石棺墓, 14. 載寧郡孤山里, 15. 昌原郡平城里, 16. 大同郡美林里, 17. 信川郡良長里, 18. 清道郡陳羅里 1 号支石墓, 19. 大邱市坪村里 20 号石棺墓, 20. 清道郡礼田洞, 21·24. 礼山郡東西里石槨墓, 22. 大田市槐亭洞石槨墓, 23. 扶餘郡蓮華里石槨墓, 25. 大邱市晚村洞土坑墓, 26·42. 大同郡上里, 27. 平壤市貞栢洞 M2, 28. 德川市南陽里 16 号住居址, 29. 大同郡硯谷里, 30. 高原郡弥屯里, 31. 湖林博物館藏, 32. 伝尚州, 33. 平壤市貞栢洞, 34. 慶州市舍羅里 M130, 35. 大邱市飛山洞石槨墓, 36. 佐賀県唐津市柏崎壺棺墓, 37. 黃州郡黑橋里, 38. 平壤市貞栢里採土場, 39. 伝金海, 40. 金海市良洞里 M55, 41. 尚州郡洛東里)

(青銅器文化) 韓半島		日本列島 (彌生時代)		
槐亭洞 東西里 南城里	細形武器成立 異形青銅器出現	Ⅱ 1期	前期末	
九鳳里	多鈕細文鏡成立 銅戈出現	Ⅱ 2期	中期初	細形青銅武器 吉武高木3号木棺墓 馬渡・束ヶ浦2号甕棺墓
大谷里		Ⅱ 3期		
草浦里 南陽里 葛洞	鑄造鐵器出現	Ⅱ 4期	中期前葉	中細形青銅武器 吉野ヶ里墳丘墓 袖比本村墳丘墓
茶戸里M1 龍田里 坪里洞 漁隠洞 勒島245住 朝陽洞M38	鐵製武器出現 武器의 裝飾的變化・退化 中原文物出現 彌生青銅器의 副葬	Ⅲ期前	中期中葉	吉武樋渡墳丘墓
			中期後葉	漢鏡登場 須玖岡本D地点 三雲南小路
			中期末葉	中廣形青銅祭器 平形銅劍 立岩10号甕棺墓
良洞里M427 塔洞 舍羅里M130 良洞里M162 老圃洞M33	深樋式銅劍・金海式銅矛 彌生青銅器의 副葬 青銅文化衰微	Ⅲ期後	後期	廣形青銅祭器 桜馬場

* 彌生時代の 時期区分은 常松(2011)

圖3. 韓半島青銅器文化和 彌生文化的 併行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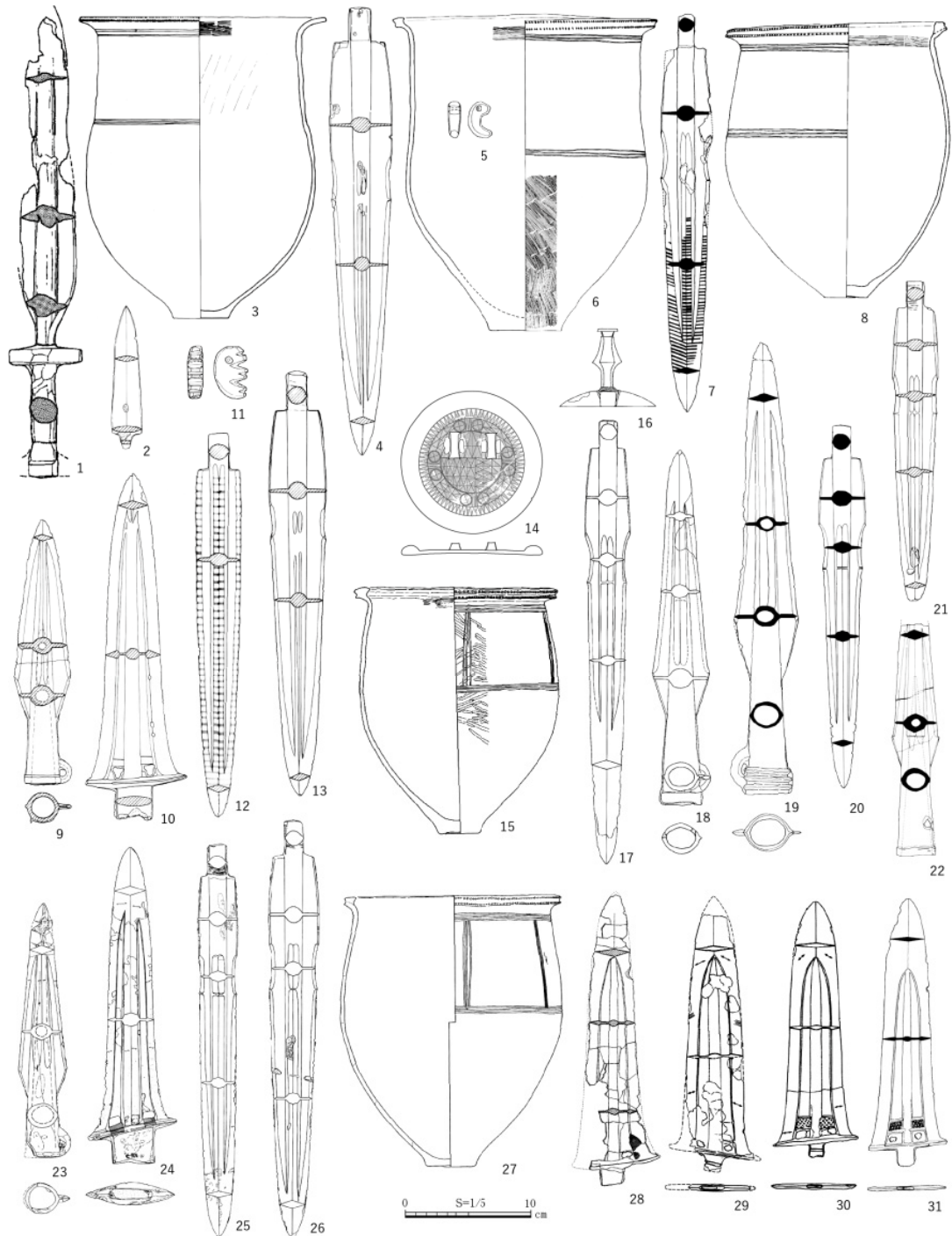


圖 4. 일본열도의 초기 청동기

(1. 福岡市比恵, 2·3. 福岡市吉武高木 K125, 4~6. 吉武高木 K117, 7·8. 吉武大石 K140, 9~14. 吉武高木第3号木棺墓, 15~18. 福岡市岸田 K0473, 19·20. 吉武大石 K45, 21. 吉武高木 K116, 22. 吉武大石 K67, 23~27. 馬渡·束ヶ浦 K2, 28. 福岡市有田 2号甕棺, 29. 糸島市久米 23号甕棺, 30. 宗像市朝町竹重 28号木棺, 31. 吉武大石 K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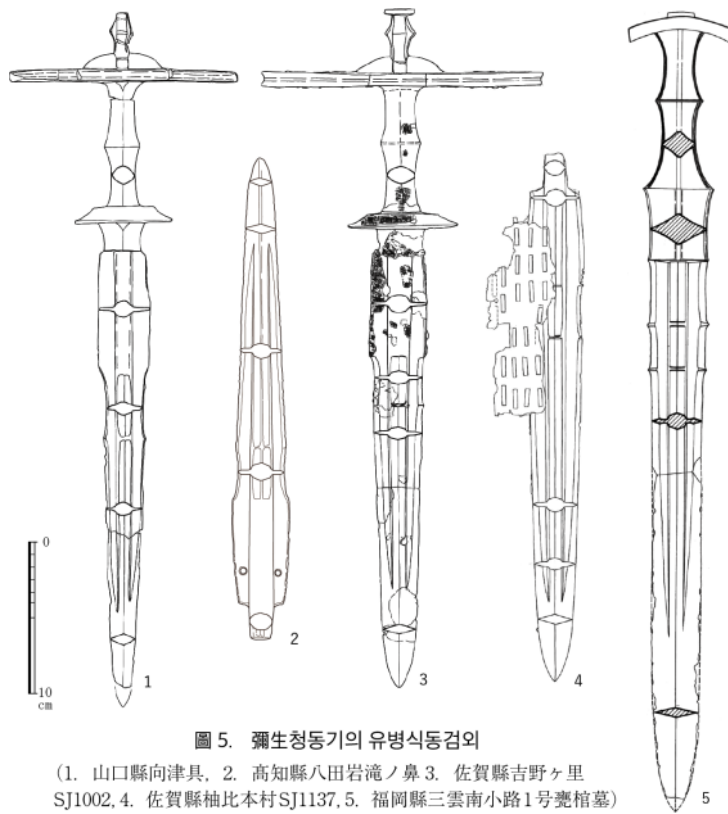


圖 5. 彌生청동기의 유병식동검외

(1. 山口縣向津具, 2. 高知縣八田岩滝ノ鼻, 3. 佐賀縣吉野ヶ里 SJ1002, 4. 佐賀縣柚比本村 SJ1137, 5. 福岡縣三雲南小路1号甕棺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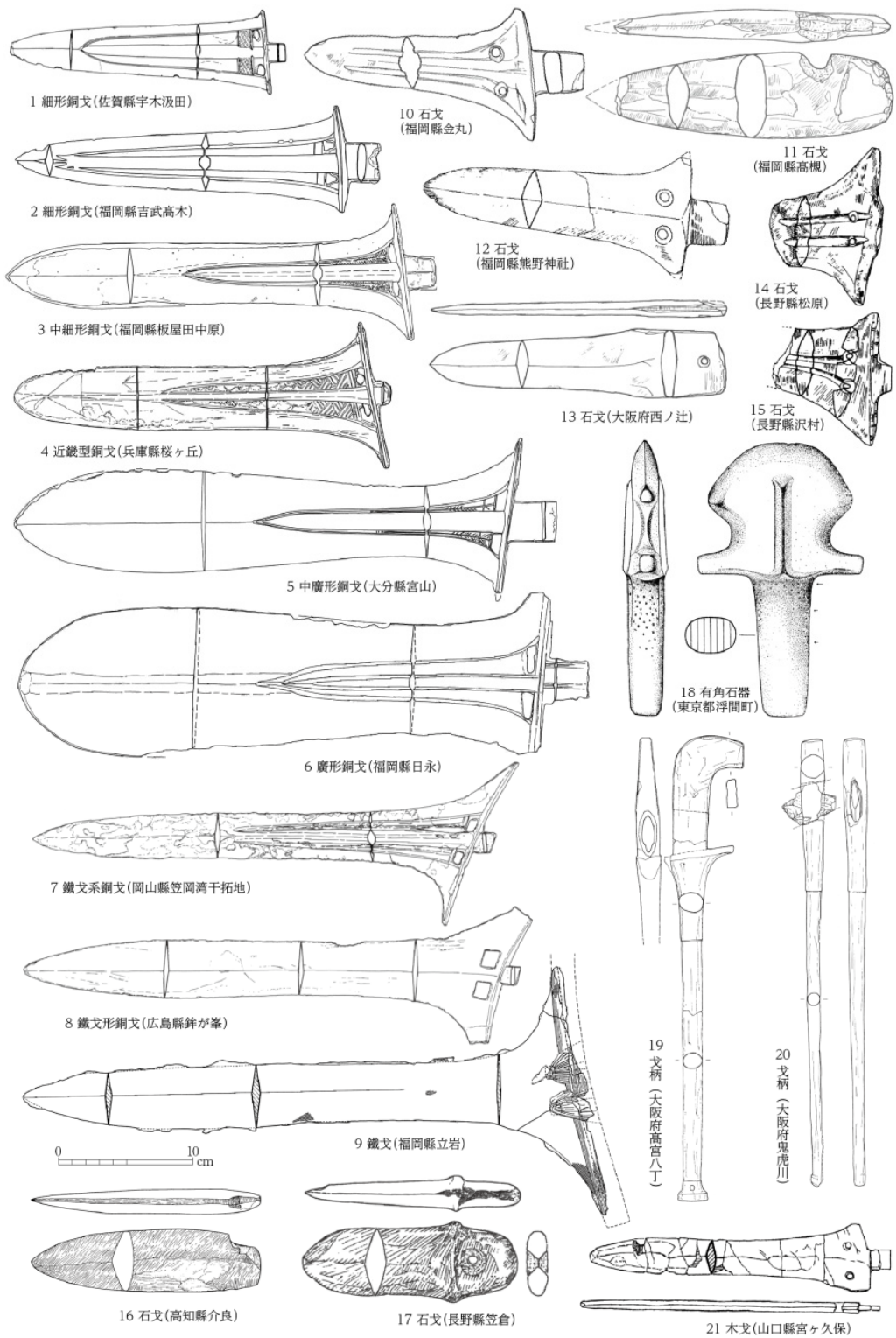


圖 6. 彌生時代の戈



1 福井縣井向1号銅鐸



2 奈良縣清水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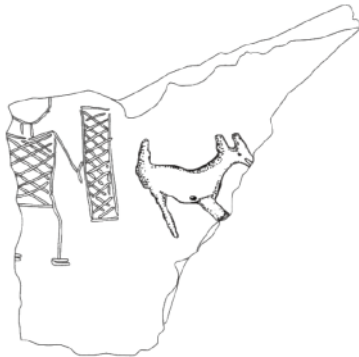
3 奈良縣清水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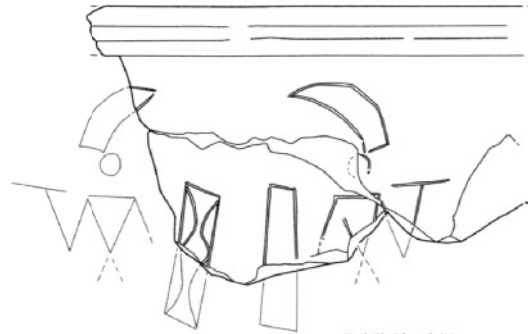
4 奈良縣石上2号銅鐸



5 佐賀縣瀬ノ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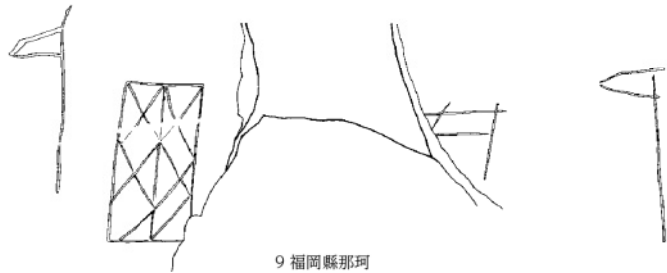
6 奈良縣平野



7 鳥取縣日吉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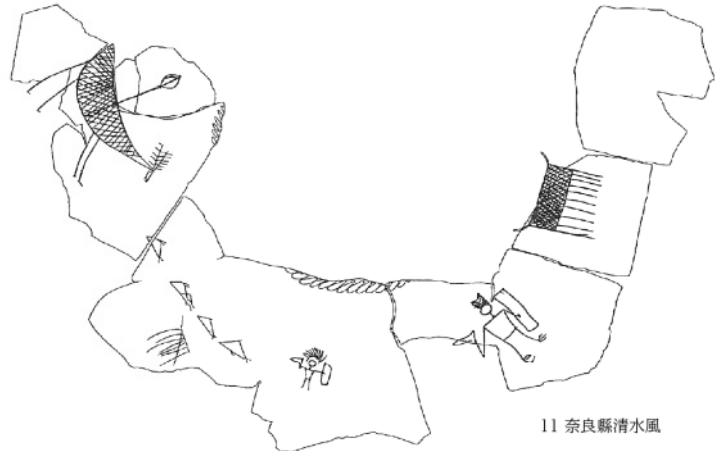
8 奈良縣唐古・鍵



9 福岡縣那珂



10 佐賀縣川寄吉原



11 奈良縣清水風

圖 7. 그려진 戈

